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

북한포커스

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1

북한포커스

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3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6



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세진 (ohsejin@kdb.co.kr)

- ◆ 소비자물가는 주요국 경기부양 및 백신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비관련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등이 급등하며 2%를 상회
- ◆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,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크며, 한시적으로 민생관련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

□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% 상회

○ 코로나19로 '20년 1% 이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21년 들어 주요국 경기부양 및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

* 소비자물가 상승률(yoy) : ('21.4월) 2.3% → (5월) 2.6% → (6월) 2.4%

-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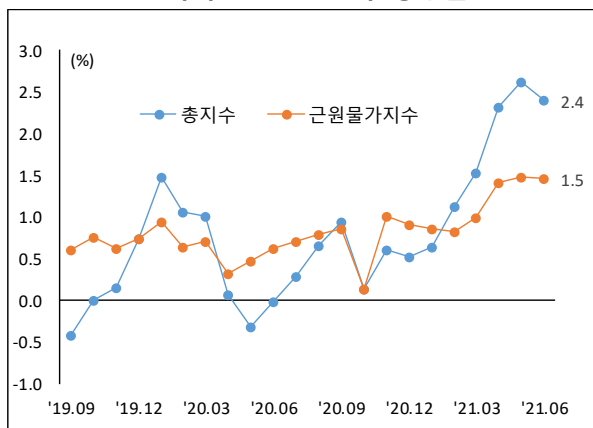
○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'20.9월 이후 10%가 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, 최근에는 경기회복으로 석유류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

- 농축수산물 가격은 가축 전염병 확대,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감소,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,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등이 겹치면서 높은 상승세 지속

- 공업제품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

* 석유류 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1.4월) 13.4% → (5월) 23.3% → (6월) 19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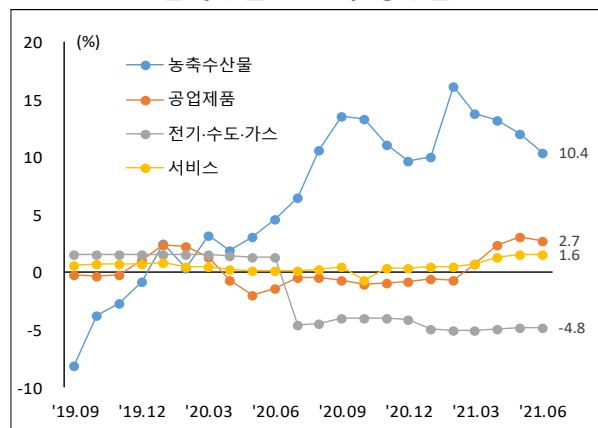
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



주 : 근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의미

자료 : 통계청

품목성질별 물가 상승률



자료 : 통계청

□ 향후 농축수산물 및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 서비스, 공산품 등의 가격인상 압력은 상존

○ 상반기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요 원자재가격*은 하반기 공급안정 및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 둔화 예상

* 5월 주요 수입품목 가격 상승률(yoy) : 원유 117.7%, 열연강대·강판 81.8%, 식용정제유 81.4%, 콩 66.2%, 옥수수 65.3%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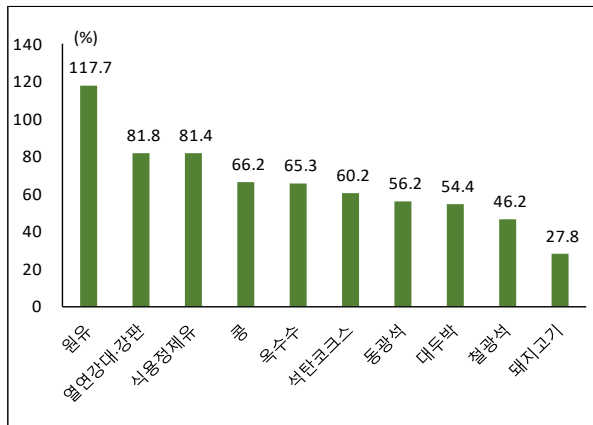
-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전세계적인 수요 급증도 있지만, '20.3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며 수입품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음

* 수입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0.3월) △14.6 → (4월) △20.4 →(5월) △20.4

○ 이전보다 높아진 원자재가격은 시차를 두고 식료품 등 소비재, 내구재,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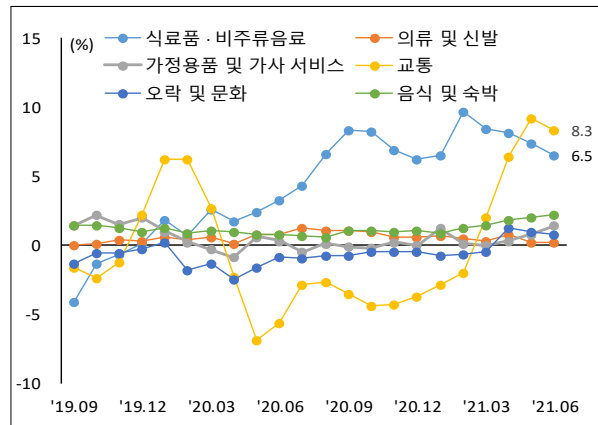
* 원자재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(10%)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최대 0.2%(4분기후) 상승(한국은행 (2021), "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")

2021년 5월 주요 제품의 수입단가 상승률



주 :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주요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 : 통계청

□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, 전년도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

○ 다만 민간소비, 임금 등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○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일부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가능

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이윤재 (eyoonjae@kdb.co.kr)

- ◆ 2020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·수입은 각각 4.9억, 0.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0.9%, 77.7% 감소하였으나, 2021년 3월부터 서서히 재개되고 있음
- ◆ 중국은 식용유, 밀가루, 설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자재를 위주로 수출하며, 북한에서 생산된 전력 등을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수입함
- ◆ 중국은 UN 제재로 인한 수출입 품목 제한 및 대외결제 능력 저하 등으로 대북 수출입 확대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어, 향후 상당기간 북중 무역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중국의 대북한 무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와 교역 제한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, 2021년 3월 이후 조금씩 회복 중

- 2020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2019년 대비 80.9% 감소한 4.9억 달러로 위축
 - 코로나19 등 영향에 따른 전면적 국경 봉쇄조치로 무역 단절 수준으로 축소, 식료품 등 일부 필수 자재를 중심으로 교역선 유지
- 2020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도 2019년 대비 77.7% 감소한 0.48억 달러에 불과, 2017년 △33.0%, 2018년 △87.7%의 급감 추세 지속
 - 2020년 수입액은 UN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(2017년) 직전인 2016년 25.4억 달러의 0.2%에 불과한 수준

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(2015~2020)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구분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출 | 2,945 | 2,833 | 3,332 | 2,218 | 2,574 | 491 |
| 증감률 | △16.3 | △3.7 | 8.2 | △31.7 | 16.1 | △80.9 |
| 수입 | 2,565 | 2,539 | 1,723 | 213 | 215 | 48 |
| 증감률 | △10.6 | △1.1 | △33.0 | △87.7 | 1.0 | △77.7 |
| 무역수지 | 380 | 294 | 1,608 | 2,005 | 2,359 | 443 |

자료 : 중국 해관총서

- 2021년도 3월 이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이 다소 증가하면서 양국간 교역이 재개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19 방역 체계 유지로 교역 지속 가능성은 유동적 - 2020년 10월 ~ 2021년 2월간 북중간 교역은 거의 단절된 상태

중국의 월별 대북한 수출입 동향(2020년 8월 이후)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구분 | 2020년 | | | | | 2021년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|
|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
| 수 출 | 19.3 | 18.9 | 0.3 | 0.1 | 3.4 | 0.0 | 0.0 | 13.0 | 28.8 |
| 수 입 | 6.6 | 1.9 | 1.4 | 1.1 | 1.6 | 1.5 | 1.8 | 1.3 | 1.8 |

자료 : 중국 해관총서,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KITA 북한무역 각호

□ 2020년 중국은 식용유, 밀가루, 설탕, 담배 등 식자재를 위주로 수출하였으며, 전력, 페로실리콘* 등이 북한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

* 합금철의 일종으로 제철 과정에서 탈탄산·탈황 공정의 첨가제로 사용

-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식용유(콩기름), 밀가루, 설탕, 담배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류 위주
- 중국은 압록강 인근 지역인 수풍·태평만·위안·운봉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북한의 전력을 수입
 - 기존 주요 수입품인 플라스틱 건자재 및 시계·의류 임가공품 등은 북중간 교역이 중단된 여파로 2019년 대비 비중 대폭 감소
 - 반면, 북한 내에서 생산 가능한 페로실리콘, 텅스텐, 가발 등은 수입 비중 확대

2020년 중국의 주요 대북한 수출입 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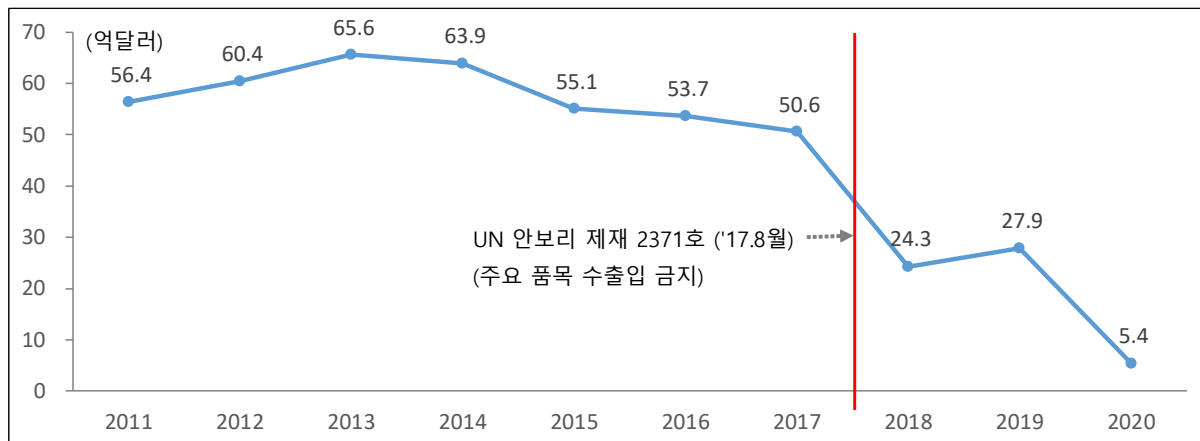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수 출 | | | | 수 입 | | | |
|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품목 | 금액 | 비중 | 증감률 | 품목 | 금액 | 비중 | 증감률 |
| 식 용 유 | 52 | 10.7 | △ 54.9 | 전기·전력 | 11.8 | 24.7 | 3.6 |
| 밀 가 루 | 34 | 6.9 | △ 53.8 | 페로실리콘 | 10.7 | 23.5 | △ 63.6 |
| 설탕 | 29 | 5.8 | △ 27.1 | 시 계 | 6.8 | 14.1 | △ 86.2 |
| 담 배 | 22 | 4.5 | △ 42.7 | 텅 스텨 | 4.5 | 9.5 | △ 63.8 |
| 타 이 어 | 16 | 3.3 | △ 40.9 | 가 발 | 2.1 | 4.4 | △ 92.8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, KITA 남북경협리포트 2021

- 향후에도 중국은 UN 제재로 인한 대북 수출입 품목 제한과 북한의 지속된 대외 결제능력 저하로 북중무역 확대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, 양국간 무역 위축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국경 봉쇄가 해제되어 중국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재개되더라도 무역액이 2018~19년의 25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~3년 이상 소요될 전망
 - 중국의 대북한 무역액은 2011년 이후 60억 달러 내외였으며, 2017년 UN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2018~19년 25억 달러 내외로 축소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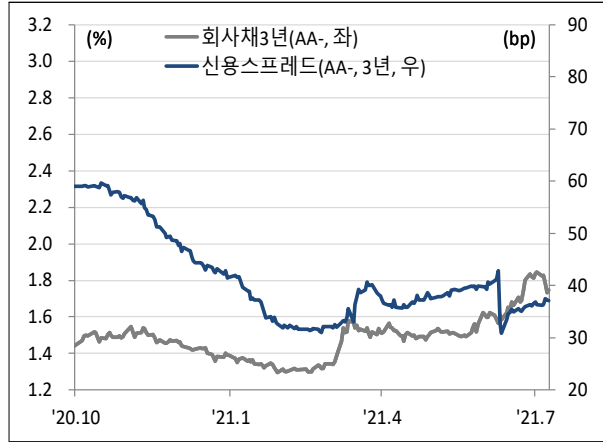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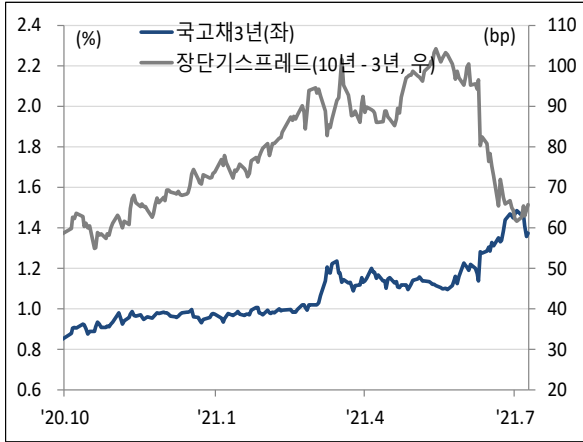
중국의 대북한 무역액(2011~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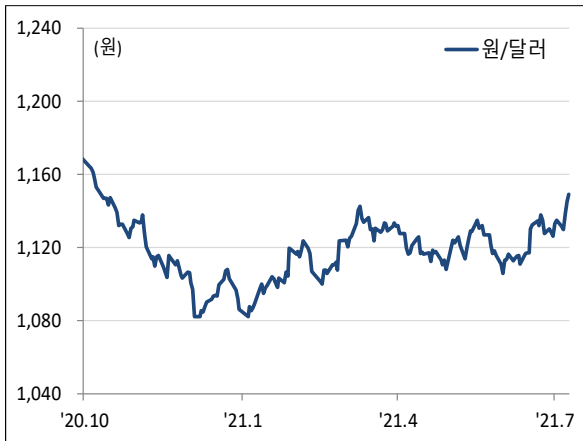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 해관총서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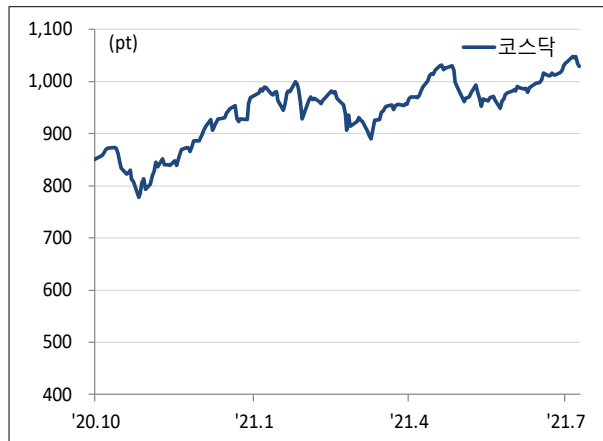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1.375% (10.9bp ↓), 신용스프레드 37.1bp (0.8bp ↑)



환 율 원/달러 1,149.1원 (14.1원 ↑), 엔/달러 110.07엔 (0.99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3,217.95pt (1.94% ↓), 코스닥지수 1028.93pt (0.89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35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